

지역살림운동 사례 나눔

밥상과 농업, 생명 살림의 터전은 어디일까요? 한살림운동이 펼쳐지는 장은 어디인가요? 생명살림의 터전은 생산지의 논과 밭이기도 하고, 정성껏 옮기고 나누는 물류현장이기도 하며, 우리 가족 밥상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가족 밥상은 생명살림의 근본이지만, 가족 밥상을 살리는 것만으로 나와 우리의 생명을 온전히 살릴 수는 없겠지요? 주변의 이웃, 우리의 생명 활동(생활)이 이루어지는 “지역”을 살리는 것이 바로 한살림운동 아닐까요? 밥상살림, 농업살림, 생명살림의 길을 걸어온 우리 한살림이 ‘생활문화운동, 사회실천활동’에 한 발 더 나서는 길 또한 ‘지역살림’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지역살림운동을 해왔고, 지금도 지역살림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살림의 역할, 사회적 과제로서 지역살림운동을 고민해온 모심과살림연구소는 지난 해 하반기 ‘지역살림운동 공부모임’을 진행하고, 올해 ‘지역살림운동 연구모임’을 꾸려 그동안 수도권 지역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실천해온 지역살림운동 사례들을 공유하고 정리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다른 지역의 살림운동은 어떻게 펼쳐고 있는지, 우리 동네의 지역살림운동은 잘 하고 있는 것인지, 마음껏 자랑도 하고, 고민도 나누며 한살림의 지역살림운동 길찾기에 함께 나세요. 지역살림운동에 나선 지부, 햇살모임 조합원님들 손잡고 함께 오세요.

□ 일시 : 2008년 6월 27일(금) 오후 2시 ~ 5시 30분

□ 장소 : 장충동 한살림 5층 교육장 ‘살림터’

□ 진행 순서

14:00	■ 인사와 진행 안내 - 진행 ; 박순원 (성남용인 이사장)
14:15 ~ 15:45	■ 사례 발표 (각 사례 발표 뒤 간단한 질문과 생각 나눔) • 워크즈 고운매 (남서) - 김종우 (서울 남서지부장) • 품앗이 육아, 교육 활동 (북동) - 황영단 (서울 북동 활동팀장) • 수돗물 불소투입 중단활동과 그 이후 (과천) - 김미화 (경기남부 이사장) • 군포지역생협네트워크 (군포) - 정영미 (전 군포지부장, 수도권 홍보위원) • 지역복지활동 (북부) - 박금순 (서울 북부지부장)
16:00 ~ 17:30	■ 사례 나눔 • 한살림과 지역살림운동, 그 의미와 역할 - 정규호 (모심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원) • 전체 토론
	• 저녁식사 및 뒤풀이

□ 문의 : 모심과살림연구소 02-3498-3770~2

사례 발표는,

- 15분 안팎으로
- 사례 활동의 개요, 전개과정, 관련 단위들의 역할과 관계, 성과와 변화, 고민과 전망, 지역살림운동에 대한 제안 등을 내용으로
- A4 2~3쪽 분량의 자료 준비하고(조사서 참조하여 24일까지)
- 발표는 가능하면 ppt 로 정리하여 활동 사진 등도 보여주는 것으로 진행

사례 나눔은,

- ‘한살림과 지역살림운동, 그 의미와 역할’ 이란 주제로 한살림의 지역살림운동 범위와 범주, 사례의 특성과 가능성을 간략히 정리하고,
- 나아가 한살림운동이 감당하고 펼쳐야할 지역살림운동의 과제와 전망을 제시함 (너무 거창한가?)
- 전체 토론에서는 지역활동 사례마다 궁금증을 풀고, 참가자들이 공감하고 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정리하면 좋겠는데, 좋은 방안은?

기타,

- ‘지역살림운동 연구모임’ 소개와 참여 권유
- 포럼에는 지역, 지부의 이사, 운영위원, 사무국장 등이 참석토록 안내, 서울복지모임과 연계 (10명 정도로, 지부 활동가, 지부 사무국장 및 외부 전문가 교섭키로)
- 자료집 정리 과제 (지역살림운동 공부모임 자료집, 사례 활동 자료집)

워커즈 고운매 (남서지부)

‘지역살림운동’ 사례 발표

2008년 6월 27일

워커즈 “고운매”는

- 지부의 다양한 소모임들 가운데, 광명지역의 바느질 소모임 활동을 한 조합원들이 일본 워커즈 사례를 함께 공부하며 워커즈를 구성
- 모여서 펼침막을 만들거나 생리대, 수세미 등을 역할 분담하여 만들고 팔아서 소액의 수고비를 받아 가는 것으로 대단한 수입은 아니지만 더 발전하면 사회적 대안 일자리까지도 가능하다는 희망으로 흔쾌히 모임
- 햇살모임이나 소모임은 시기가 지나면(자녀가 자라든지 취미가 바뀌면) 구성원들이 흩어져 모임이 어려워지지만 워커즈는 일과 수입이 함께 가기 때문에 더 발전시킬 여지가 많음
- 워커즈는 우리가 좋아하는 한살림 안에서 운동성을 가지고 수입도 만들어 보람되고,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

“고운매” 활동은,

- 바느질 소모임에서 워커즈 학습을 하며 희망을 가졌고 한살림서울 총회의 펼침막을 만들면서 조직에서 도와주는 느낌을 받아서 고무되었다.
- 이사로 워커들이 교체되어 흔들릴 때 조합원활동실에서 일본 그린코프와 교류할때 선물로 생리대와 수세미를 주문 제작하면서 숨씨들이 안정화되었다.
- 각 워커들이 5만원씩 출자한 돈과 수익금의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재봉틀과 원자재 값을 충당하고, 모임방을 작업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
- 워커즈 연구팀을 구성하여 각 지부별로 매장에 진열할 수 있게 되었고 조합원활동실에서 워커즈 안내 리플렛을 제작해서 각 매장에 비치해주면서 전화주문이 들어오고 있다.
- 가을걷이 잔치나 지역의 중학교에 나가서 강의도 하며 홍보장터에 나가서 만드는 법을 지도하며 판매도 하고,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다.

주변의 호응과 관계

- 활동가 순환의 장에는 활동가 모두가 다 대상이므로, 워커즈의 활동에 호의를 가지고 있고, 홍보장터에는 고운매 워커즈의 물품이 나가는 것으로 장을 풍성하게 해 주고 워커들의 참여로 분위기를 고양시키고 있다
- 또 수익금의 일부를 지역복지기금을 내어 서로 돕고 고마워하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 지역에서는 고운매의 존재를 아는 사람들이 있는 정도이지만, 주민들이나 이웃들도 친환경적인 운동으로 인식하고 호의적
- 지역의 중학교에 교사로 있는 조합원의 요청으로 중학생들 상대로 우리 몸을 아끼는 교육과 생리대 만드는 방법을 지도했는데 바람직한 교류였다.

“고운매” 활동에 대한 생각

- 위커즈 활동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계속해나가야 할 운동이라는 생각
- 위커들은 스스로 우리가 할 일이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
- 한살림서울의 조직적인 차원에서 위커즈 활동을 고무적으로 생각하며, (위커들의 기대와 같이) 한살림 서울의 정식 물품으로 등록 하면 위커들이 더 모이고 활동을 더 활성화 시킬 수 있지 않을까...
- 위커들 스스로가 더 노력하며, 해외의 성공사례를 보는 기회 등을 가질 수 있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함.

지역살림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 조합원활동의 다양한 장으로는 위커즈 운동만큼 멋진 것이 없다는 생각
- 물품등록을 망설이지 말고 일단 등록시켜서 물품을 판매하면서 위커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 아직 시기 상조라든지 물품을 어떻게 델 것이냐든지 하는 것은 기우이다. 4년 정도 위커즈 활동을 한 고운매는 끈기 있는 모임이라고 생각한다. **아줌마는 힘이 세다. 그리고 능력도 있다.**
- 고운매 뿐아니라 육아소모임 몽키프렌즈도 육아 위커즈로 발전 할 수 있고, 천연화장품과 비누 만들기 소모임 풀잎향기나 규방공예도 조금 변형시키면 위커즈로 발전시킬 수 있다
- 같은 생각을 가진 조합원들이 자주 만나면 상승효과를 발하여 다양한 일이 꾸려질 것입니다. 무슨 일로든 만나야, 만나서 밥 먹고 이야기를 해봐야 일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품으로 크는 아이들



동대문구 품앗이 공동체의
어제와 오늘

동대문구 품앗이 공동체의 어제와 오늘

- 1단계** ▶ 소수의 회원 중심 육아 품앗이 시기
- 2단계** ▶ 지역도서관을 통한 확산기
- 3단계** ▶ 공교육을 보완, 지역의 교육환경을 향상시키는 시기

소수 회원중심의 육아품앗이 시기



지역도서관을 통한 확산기



품앗이 여름캠프



품앗이 여름캠프



세계문화 체험



세계문화 체험



품앗이 한마당



품앗이 한마당



품앗이 한마당



품앗이 한마당



품앗이 한마당



품앗이 한마당



품앗이 한마당



품앗이 한마당



공교육보완 지역의 교육환경을 향상시키는 시기



지금 우리는 ...

1. 해 띠: 초등 4, 6명 (2001년 시작 ~현재 띠앗1기)
2. 하늘땅 별땅: 초등 2, 7명 (2007년 ~띠앗 2기)
3. 띠앗 3기: 초등 1, 4명 (2004년 ~현재)
4. 띠앗 4기: 6세, 8명 (2006년 ~현재)
5. 놀아보자: 남자아이 통합, 5명 (2007년 ~현재)

해피 초등 4, 6명 (2001년~현재)



동대문구 품앗이 공동체가 꾸는 꿈

품앗이
부모교육

폭넓은
지역교류

품앗이
어린이 교육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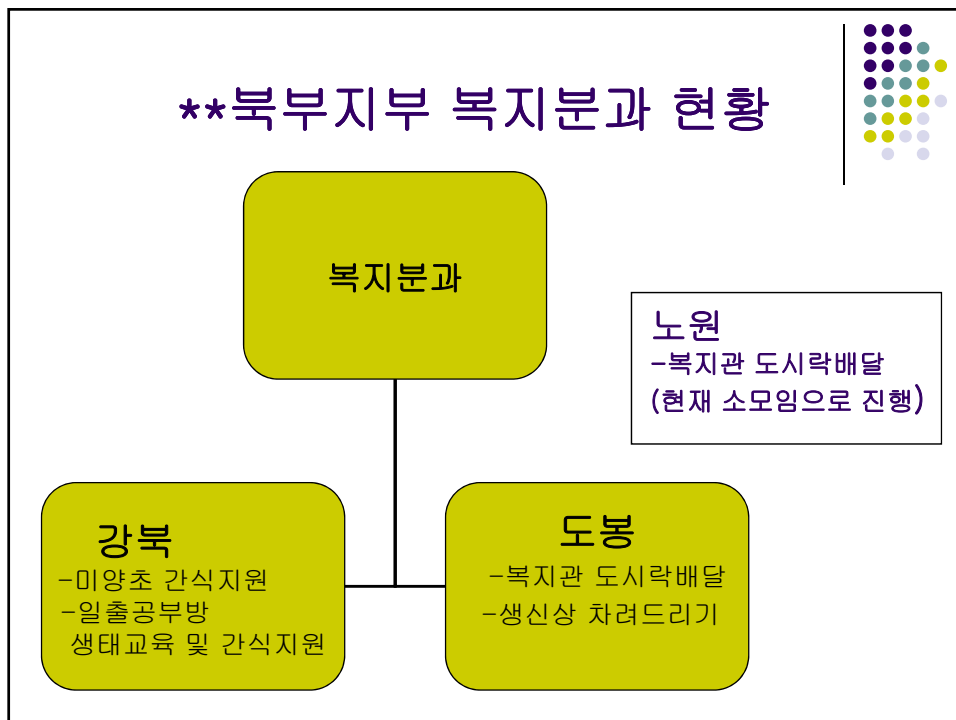
다양한
교육실험의 장

건강한 방과후
교육센터

활동성과 및 긍정적 영향

- 잘못된 육아풍토와 사교육에 대항하는 또다른 대안
- 아래로부터의 지역 운동
- 교육 여건을 집단의 힘으로 보완,향상시킬수 있는 대안
- 다양한 교육방법들이 실험되고 창조되며 실행되는 장

감사합니다





도봉지역 복지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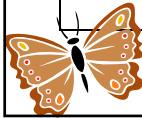
차량봉사자와 함께 도시락배달



2002년



- 7명의 조합원으로 시작
- 한살림의 지역역할에 대한 문제제기를 받고 복지활동에 대한 고민시작
- 월 2회 학습과 봉사활동을 병행하기로 함



2003년



- 방아골 복지관과 연계하여 ‘도시락 배달’ 시작(하반기부터 주2회 배달)
- 틈새가정 대상으로 ‘밑반찬 만들기’ 시작
- 기금마련을 위한 활동
후원자 모집, 어린이날 음식판매, 도봉구청의 차량유류비 지원금 모금
- 기타활동
생산자돕기 음식판매



2004년



- 월 1회 정기모임
- 주 1회 도시락 배달
- 월 1회 불우이웃돕기 활동
- 활발했던 활동에 전년도에 비해 많이 위축됨



2005년



- 복지모임이 ‘분과’로 전환
- 주 2회 도시락 배달
- 분과원들의 이사 등으로 활동이 많이 위축되면서 존폐의 위기에 놓임



*도시락배달



2006년

- 조합원 12명이 모여 다시 활발한 활동을 펼침
- 홀몸노인을 위한 도시락 배달(가방 제작)
- 생신날, 어버이날 기념 떡 케이크 만들어 드리기
- 명절 음식, 김장 나누기
- 생신상 차려드리기
- 다양한 모금활동
(떡, 환경수세미 판매, 매장내 후원저금통 설치)
- 정기 후원자를 모집 
복지활동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계기



생신 축하드려요!!!



2007~2008년 현재



- 방아골 복지관 도시락 배달 주 3회 배달 (월, 화, 토)
- 월 1회 둘째 목요일 홀몸노인 생신상 차려드리기
- 명절에 음식 나누기
- 12명의 분과원들이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음





복지기금 현황(도봉)

- 도봉구청 여성발전기금 (월15만원 지원)
2008년 - 홀몸 노인 생신잔치 비용으로 사용
- 북부지부 복지분과 지원비 년 30만원
- 매장 내 후원저금통 - 약 23만원(2007년)
- 떡, 환경수세미 판매 수익금 - 약 25만원
- 후원자 기부금 - 약 90만원(2007년)
- 분과원 월 회비 - 1만원(1인)

향후 방향성



- 현재 활동을 지속적으로 공고히 함에 주력함
- 봉사자의 결원이 생기더라도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
- 도시락 배달을 받는 어르신들의 집 청결노력
- 생신상 차려드리기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 모색(동화 들려주기, '외롭지 않은 방법' 이야기 하기 등)



강북지역 복지활동



2006년



- 강북지부에서 2명의 분과원으로 시작
- 미양초등학교 교육복지실과 연계하여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 간식지원시작
- 인스턴트나 과자류, 청량음료에 치우친 것을 보고 한 살림의 재료를 이용하여 엄마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간식을 제공하고자 함
- 미양초에서 학기당 5만원 지원, 지부 비용 지원
- 지부 광역화가 추진되면서 과도기를 맞아 활동 중단



2007년



- 하반기에 3명의 분과원이 활동시작
- 9월부터 미양초 간식지원 재개
- 40명을 대상으로 월 1회 봉사
- 비용 : 매장에서 떡과 환경수세미 판매
- 매장 내 후원저금통을 설치하였으나, 인식의 부족인지 별 효과가 없음



맛있는 간식을 먹어요! - 미양초등학교



2008년

- 미양초 간식지원
 - 40명(저소득층 어린이 대상)
 - 학기당 10만원 지원받음
- 일출공부방 간식지원
 - 미아SKA 방과후 생태교육과 간식 진행 (교육분과원과 연계)
 - 비용과 봉사자 부족으로 간식은 월 1회 지원
- 현재 분과원 5명(간식지원 4명, 수세미 1명)



맛있는 간식을 먹어요! - 일출공부방



* 천연염색 중 - 일출공부방



강북지역 복지기금현황



- 판매기금(환경수세미, 떡-매장) 월 5만원
- 지부 분과 지원금 20만원(2008년)
- 미양초 지원금 20만원(2008년)



향후 방향성



- 초기 단계로 분과원과 기금도 부족하고 아직은 활동이 미미하지만 점차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함
- 분과원 총원과 강북구 복지활동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데 주안점을 둔다
- 소액정기 후원자를 모집한다.





노원지역 복지활동



2007년



- 현재 소모임으로 활동 중
- 9월 공릉 햇살모임에서 논의하여 공릉복지관과 연계해서 홀몸노인 대상으로 도시락배달 시작
- 공릉지역 자원봉사자 소모임 결성





지역살림운동 사례발표

- 과천 지역의 경험 -

수돗물 불소투입중단운동과 그 이후

2008. 6. 27.

이해정

1. 수돗물 불소화 투입 중단 활동

- 1994년 과천에서 ‘건치’ 주도로 수돗물 불소화 사업 진행
 - 수돗물 불소화 : 충치예방 목적으로 먹는 물에 불소를 투입하는 공중보건사업
- 1998년부터 한살림에서 수돗물불소화 반대운동 시작
 - 98년 녹색평론을 통해 수돗물에 투입하는 불소가 산업폐기물이며 인체에 축적되어 위험한 질병을 유발하는 독극물이라는 문제가 제기됨
 - ‘의심되는 물질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는 어머니의 감수성으로 주민여론을 무시하고 사업 강행하는 전문가주의에 경종을 울림

● 한살림 차원의 수돗물불소화 반대운동 노력

- 반대운동 초기 과천지역 시민운동진영의 관심과 참여 미비
- 한살림 차원의 여론형성 노력 : 주민자치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방문하여 직접 설득. 각 가정으로 ‘멈추시오 수돗물 불소화’ 쪽지편지를 배달 등

● 2003년말 수돗물불소화 사업의 종결

- 시장, 보건소, 찬/반측의 직접 토의 후 주민투표에 부칠 것을 합의
- 투표절차를 준비 중 여론을 의식한 과천 시의회의 사업비 예산 삭감으로 종결

2. 불소화운동 이후 한살림 과천의 경과

● 성과 뒤에 남은 과제

- 3년 넘게 걸린 싸움으로 한살림 과천 활동가들은 지치고 피로한 상태
- 시민사회에 대한 실망과 서운함, 불신이 남음

● 이후의 모습들

- 일을 끝낸 성과가 다음 일을 해낼 힘으로 이어지기 보다 외부와의 소통이 다소 소원해짐
- 이 운동의 중심활동가들에게 이후 조직적 배려가 없었던 점도 아쉬움
- 강렬한 목표가 사라진 후 지역살림으로의 확산, 확대를 위한 관계망에 대한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약해짐
- 이후 생협으로 독립, 확장, 통합을 거듭하며 에너지를 내부로 모아야 할 필요 증대

3. 이후 진행된 과천의 주요 풀뿌리 활동

- **보육조례 제정 운동**

- 전국 최초의 시민발의 조례제정: 시민자치정책센터, 한살림, 공동육아조합들 참여
- 연구자들의 호평을 받음

- **지역 방과후 학과 설립 운동**

- 과천 최초 공부방: 공동육아조합, 대안학교, 한살림, 학교평화, 공무원노조, 환경연 등 다수 시민들 참여
- 과천지역 시민사회전체가 공감하는 의제로, 사업 진행과정에서 시민사회 관계망이 급속도로 확장 (이후 과천 관내 지역아동센터 4곳이 더 생겨남)

- **학교급식운동과 학교운영위원회**

- 학교활동 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
- 소위활동 활성화, 특히 급식소위의 급식검수, 업체 실사 등이 주목 받음

● 지역언론 만들기

-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고민의 결과
- 한살림, 학교평화, 공무원노조, 환경연합, 민주노동당, 품앗이, 대안학교, 다양한 시민들 참여
- 월 4면 12,500부 발행. 기획, 기사, 배포까지 자원봉사로 이루어짐

● 풀뿌리 지방선거

- 시민 200여명 지방자치 추진 네트워크를 꾸려 2곳의 후보자 결정
- 연인원 200여명이 선거운동에 참여 – 2개 선거구 모두 2위로 시의원 당선(민노당 1명, 시민후보 1명)

● 최근 상황

- 광우병 소고기수입 반대 현수막 걸기 운동
- 수준별 이동수업 중단

4. 한살림의 지역살림운동에 대하여

- 왜 지역살림운동이라고 말하는가? 내부 정리가 필요

- ‘한살림의 조합원들이 지역에서 하는 일상적 조합원 활동을 더욱 확대, 확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풀뿌리운동, 풀뿌리 자치운동, 혹은 시민사회가 전반적으로 고민하는 활동들과 만나가려는 것인지’

- ‘지역’에 대한 개념, 운동 ‘주체’에 대한 정의, 운동 방식과 평가에 대한 공유가 필요

- 한살림이 가진 고유 이미지로는 풀뿌리운동에 많은 관심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지부나 조합원 활동가로서는 상당부분이 부담스러울 수 있음

- 지역 풀뿌리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를 먼저 만들 필요

- 구조화, 체계화 되어 있는 한살림 상황에서 조합원 활동가가 자신 활동을 스스로 결정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

- ‘지역협력위원’ 정도로 의지 있는 활동가들 스스로 위상을 정하고 따로 사업을 개발하지 말고 지역사회에 데뷔하는 방안

- 기존의 위원회형태로 지역살림운동에 접근한다면 조합원들의 욕구를 하향평준화하게 될 우려

- 목표는, 관계형성, 방식은 마음을 열고 인사하고 다니기.
그러다 교집합이 되는 활동이 있으면 푹땡 빠져서 한 번 해보고.
또 그러다 서로 믿을 수 있는 관계가 되면 당신이 꿈꾸는 지역
의제를 한 번 제안해 보고.
제안이 채택되면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거고 ...

지역살림운동 사례발표

군포지역 생협네트워크

(한살림생협 군포지부, 여성민우회생협 군포지부, 군포YMCA생협, 군포생협)

2008년 6월 27일

들어가는 말

한살림 운동이 시작되는 시점은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어느 지점일까
아마 사람과 지역에서 동시에 시작된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다. 그래서 살림운동이라는
우리의 구호는 이땅 어느곳에서나 누구에게나 통용될 수 있는 언어이기도 하겠다.

한살림이 지역생협네트워크에 들어간 이유

지역에서 생협활동하는 사람들끼리 얼굴도 보고 교류도 해보자는 제안
군포지역 한살림 운동도 소박하게 시작됐다. 조합원이 모여 먹을거리 이야기를 하고 환
경이야기를 하고 아이들 교육을 이야기하는 어쩌면 주부들의 수다모임이었는지도 모르
겠다. 그러다 군포지부에 대한 구체적인 지역그림을 그리게 되고 한살림과 생협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 고민이 시작되면서 도움이 될만한 것들을 찾게되고 양재동 한살림
보다 가까운 지역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군포지역 생협네트워크를 2004년 3월 참여
하게 된다.

모임 진행방식

월 1회 정기모임: 학습 및 대표자회의
공동사업 진행시 수시로

2004년 활동

- 상반기는 주로 생협의 역할 및 협동조합에 관한 학습모임으로 월1회 모임
- 하반기는 각 생협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동사업 진행

4월 ~11월: 협동조합에 대한 다양한 이론 학습 및 생협역할 토론
8월 :지역내 협동운동의 선구자였던 이건우 선생 추모행사 참여
9월: 활동가 아이들을 함께 돌보는 공동보육 논의

함께 모인 4개 생협은 기초적인 학습을 함께했는데 타 생협보다 운동의 주체가 늦게 꾸려졌던 한살림 활동가들은 생소한 언어와 새롭게 접하게 된 이론들이 많아 애를 먹었던 기억들이 새롭다.(물론 이는 지역에서 정보부족과 활동가의 역량이 짧은시점임) 공동학습은 생협활동의 사상적 이론적 기초를 공유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증대시키면서 교류의 확대로 이어졌다.

공동육아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고 이건우선생 3주기 추모제(8월 27일)에 참석하였다. 또 인근 농촌지역과의 교류모색을 위한 친환경 쌀 생산지 방문을 하고 중심상업지역에서 공동바자회를 열었고 특히 11월 생협과 지역공동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경기도내 이웃지역 생협을 초대하기도 했다.

2005년 활동

- * 월별 공동 사업계획을 잡고 공동진행 정착화
- * 이사 및 운영위원을 위한 공동교육인 생협학교와 생협주간 마련
- * 공동리플릿 제작

3월: 친환경 급식을 위한 토론회

4월~5월: 제1기 생협학교 및 원주와의 교류

10월: 생협주간 운영

매월 정기적인 대표자회의와 학습을 계속하면서 3월에는 학교급식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자체내에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급식관련활동을 했다. 4월에는 제1회 생협학교를 4강좌를 마련 조합원과 활동가를 위한 공동교육을 실시했다. 5월에는 장일순선생 11주기에 맞춰 생협학교 졸업여행을 겸해 원주를 방문하여 원주의 협동조합운동 모습을 보고 많은 배움을 가졌다.. 10월에는 ‘생협은 군포의 미래입니다’라는 주제로 1회 생협주간을 맞이하여 군포내 쌀생산지와와의 교류, ‘경제공동체로서의 생협과 워커즈 콜렉티브’를 주제로 제2회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어울마당과 벼룩시장을 공동으로 개최하면서 동지적 결속을 강화하였다. 공동으로 사용할 소개 리플렛¹⁾을 인쇄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2006년

- * 생협네트워크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
- * 공동 사업계획및 시행에 내실화가 다져짐
- * 일본 생협과의 교류시작
- * 지역속에서 함께하는 생협활동 진행
- * 생협이 할 수 있는 다양한 모습 시도

1월: 워커즈연구회 공부모임 시작

3월:오사카 알파쿠프 생협상무 간담회

4월~5월:제2기 생협학교 및안성의료생협과 교류

5월: 생협조합원 연합마을 모임 개최

5월: 시의원 후보자 초청토론회

6월: 대야미 생산지와의 교류

8월: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영양사 간담회

10월: 생협주간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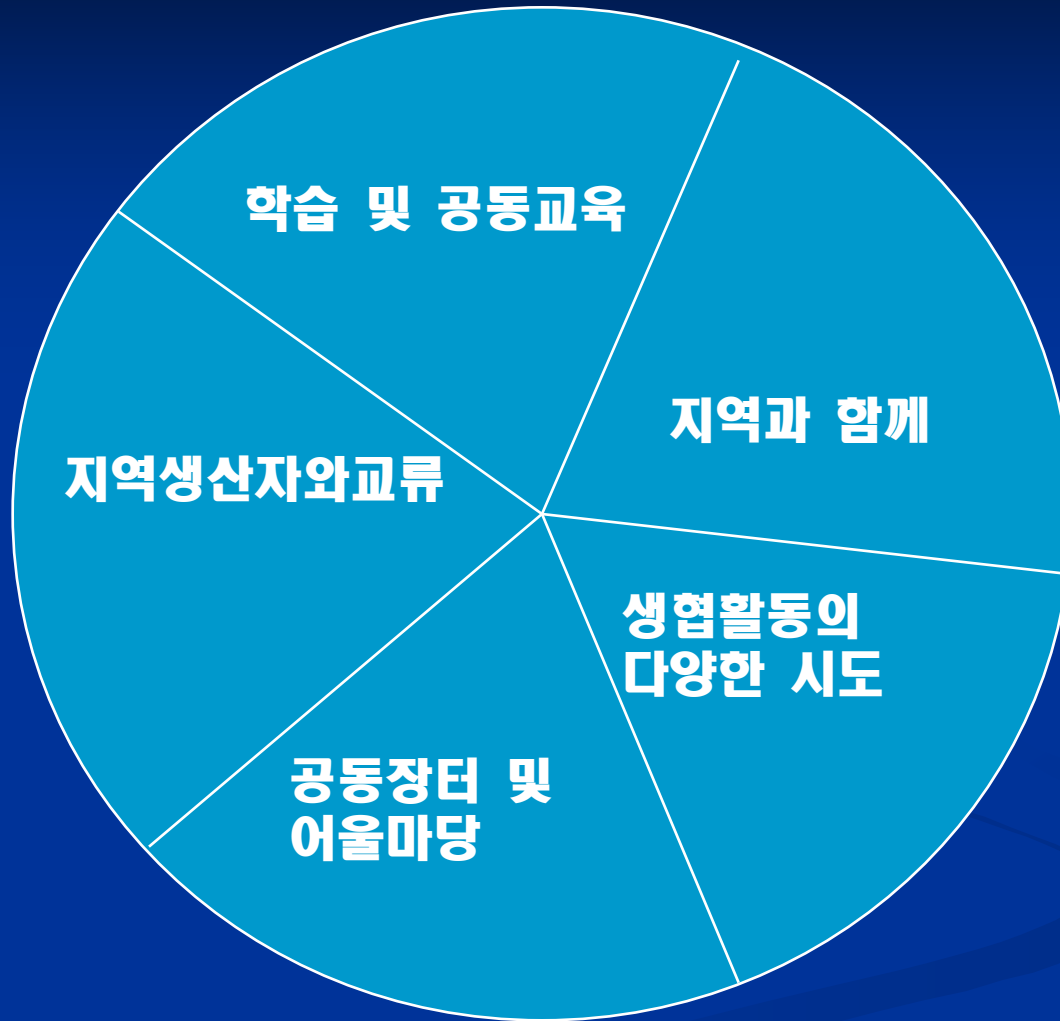
11월: 일본생협과의 교류-치바생활클럽, 복지생활클럽, 자원봉사자클럽

2007년

- * 생협네트워크 활동은 줄이고 각각의 생협활동에 주력하기로 함(한 살림은 광역지부 및 분화라는 과제의 어려움이 있었음)
- * 학습은 일본생협방문 예정으로 일본의 시민운동을 주로 학습함.
- 군포의제에 한살림이 참여하고 6개월 사업으로 탄소발자국 사업을 생협조합원 200명을 대상으로 모니터링함.

2월~ 3월: 관내 초등학교 친환경급식 현황 및 시 청소년과에 생협 적극 홍보
4월: 각자의 집에서 사용하는 전기와 가스사용량을 탄소배출지수로 환원하여 에너지절약을 실천하기로 한 탄소발자국 사업을 공동 진행
5월~6월: 제 3기 생협학교 운영와, 마포두레 생협 둘러보기.
8월: 각 생협에서 참가한 8명이 치바생활클럽을 4박5일 연수
9월: 광우병위험 미국산 소고기 이마트판매 중지요청 릴레이 시위를 진행
10월:연합 공동장터를 열었다.

군포지역생협네트워크 중점활동



학습 및 공동교육

- * 월1회 학습모임
- * 생협학교 운영
- * 다른 생협 둘러보기-원주, 안성, 마포
- * 생협주간 운영



2004년 10월 토론회



2006년 10월 워커즈관련토론회

원주돌러보기



무위당선생묘소앞



무덤앞에서 이야기나누기



원주협의회에서



삼도생협 방문

안성의료생협방문



생협학교



1기 생협학교



2기 생협학교



2기생협학교



3기 생협학교중

급식관련활동

- * 군포시급식조례제정서명운동 참여
- * 친환경급식을 위한 토론회
- * 군포시 소재 초중고 급식에 관한 기본사항 조사(직영인 초등학교는 비교적 괜찮았으나 중고등학교는 학교마다 급식상황이 다르고 위탁급식업체들은 가격을 올리고자 하고 학교는 무상급식대상자가 많아 시의 대책이 필요함을 공유)
- * 안전한 급식을 위한 간담회 개최 관내 초등학교 영양사 30여분 모시고 친환경급식 홍보(한살림은 몇학교에 자료보냄)
- * 군포시청소년과 급식관련담당자와 년1회 간담회→친환경급식 예산 해마다 증가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음



급식관련활동



지역내 생산자와의 교류

- * 관내 대야동과 속달동에서 오리농법으로 친환경쌀을 생산하는 생산자분들과 교류
- * 오리농기 행사와 가을걷이 행사를 지역에서 함께 함,
- * 지역생산자가 생산한 쌀을 조합원이 사는 활동에는 한 살림의 참여는 미비(이 시기 한 살림도 쌀이 남아 돌고 있었고)
- * 작목반으로 발전하여 농협에 전량수매가 가능함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음



대야미생산지와의 교류



좁은공간이지만 아이들이 줄다리기하며 놀던모습

지역에서 가을걷이 행사중



생협홍보및 공동바자회

- * 년 1회 생협홍보장터 공동개최
- * 아나바다를 통한 수익금
이웃을 돌보는 기금마련 장터
- * 생협주간에 맞추어 공동어울마당 마련
- * 군포시지원 친환경물품홍보



공동바자회



생협홍보장터



워커즈 관련 활동

- 2005년부터 각 생협별로 워커즈 논의가 활발해짐
- 생협네트워크내에 워커즈연구회를 만들고 협동조합의 창립에서 운영까지 학습함.
- 한 살림은 참여가능한 지부활동가와 매장에서 참여함.
- 생협주간에 “워커즈 한국에서의 전망”이란 주제로 토론회 개최
- 각 생협별로 단기간에 시도해봄. 민우회-김장김치 군포생협-식사서비스, YMCA-천연화장품, 한 살림은 도시락사업등 논의는 있었으나 실천되지 못했고 매장워커즈에 영향을 줌 ... 모두 1회성에 끝난 아쉬움이 있음



지역을 바라보는 활동

- * 연합마을 모임
- * 지역내 문제점 공유(초막골 근린공원 대신 생태공원으로 만들자 서명운동)
- * 관내 도서관 시설현황파악, 도서관수 너무 적다 시에 건의
- * 영어마을 조성 현황 알아보고 문제점 공유
- * 광우병 위험소고기 알리기 및 이마트 판매중지 요청시위
- * 2007년 지구온난화 관련 학습 및 탄소발자국 사업 모니터링



일본생협과의 교류

2005년 오사카알파쿠프 생협 간담회
2006년 생활클럽생협 초청 교류 및 토론회
2007년 치바현 생활클럽생협에서
 군포지역생협활동가 연수
2008년 생활클럽생협 두레생협방문시 교류



일본생협과의 교류



한살림이 지역네트워크에 참여하면서 배운 몇가지 것

- * 지역에 대한 관심증가 및 한살림을 지역에서 인식
- 한살림의 지역속에서의 자리매김 및 활동가도 성장
- * 활동거리가 풍성해졌다. 타생협 활동배우기-조합원활동 활성화
- * 지역속에서 생협이 연대하면 좋은것들과 관계맺기
- 귀농운동본부 텃밭, 수리산자연학교, 군포의제
- * 연대하면 적은 예산으로 많은것을 얻을 수 있다.

한살림과 지역살림운동 : 의미와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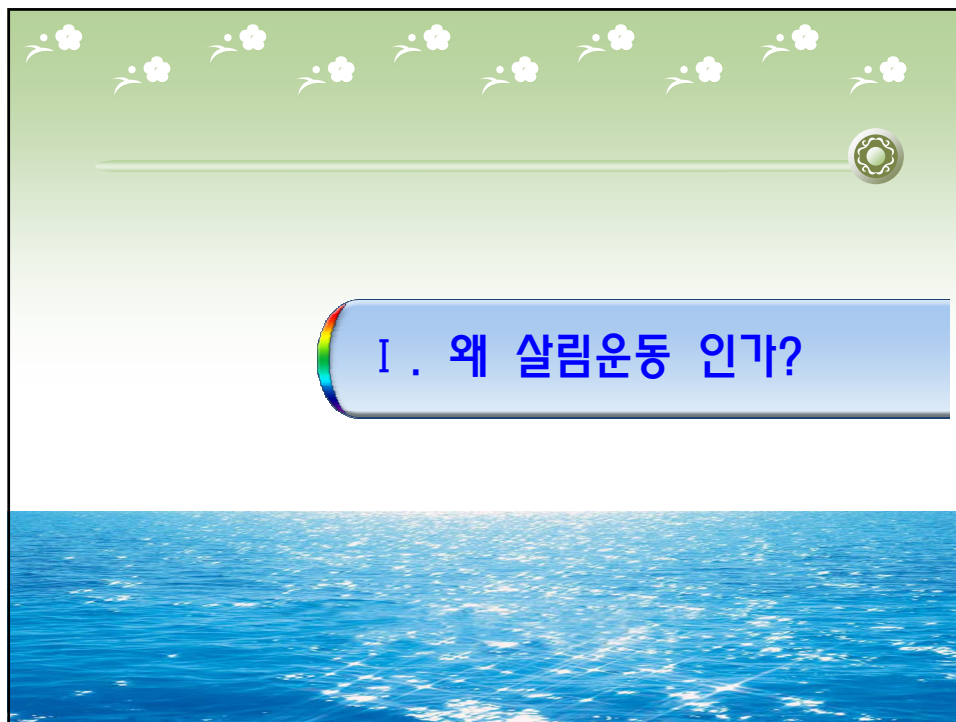
2008. 6. 27.

모심과살림연구소

I . 왜 살림운동 인가?

II . 지역살림운동에 대하여

III . 한살림운동의 방향과 과제



I. 왜 살림운동 인가?

1. 예견된 재난? 위험사회의 도래

생태학적 자립기반의 붕괴

-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체계 변동
- 자연자원(물, 식량, 에너지)의 고갈 가속화: '질'의 문제 → '양' 자체의 문제
 - 먹고, 마시고, 활동하기 위한 생명유지의 기본 토대가 붕괴 (개인 - 사회체제)

정상(正常) 속에 내재된 비정상(非正常)의 문제

- 풍요의 시대가 만들어 놓은 새로운 결핍의 문제
- 보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온 결과
 - 현실 사회체제의 오작동에 따른 부작용인가? 아니면 정상적인 작동의 필연적 결과물인가?

패러독스(Paradox)

2. 선택의 기로에 서서

살펴보기 : 현실 속에 스며든 '죽임'의 그림자들?

- **경쟁과 속도가 지배하는 현실**
 - 생태계 보존 및 복원 노력 정도 < 생태계 개발 및 파괴의 규모, 속도
- **개인, 사회 모두 무관심, 무감각, 무능력, 무책임에 빠져있는 상황**

돌아보기 :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낡은 유산들

- **지난 세기의 성장체제가 만들어 놓은 낡은 유산들**
 - 경제성장제일주의 / 목표달성주의 / 공급주의 / 속도주의 / 결과중심주의
- **불균형 성장 → 상대적 박탈감 심화 → 욕망의 확대 재생산 → 경쟁과 갈등**
 - 구조(행정>정치,사회) / 제도(경제>복지,환경) / 경제(재벌대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 / 부문(공업>농업) / 공간(중앙>지방) / 지역(수도권대도시>지방중소도시,농촌) → 계층 간 소득불균형, 비정규직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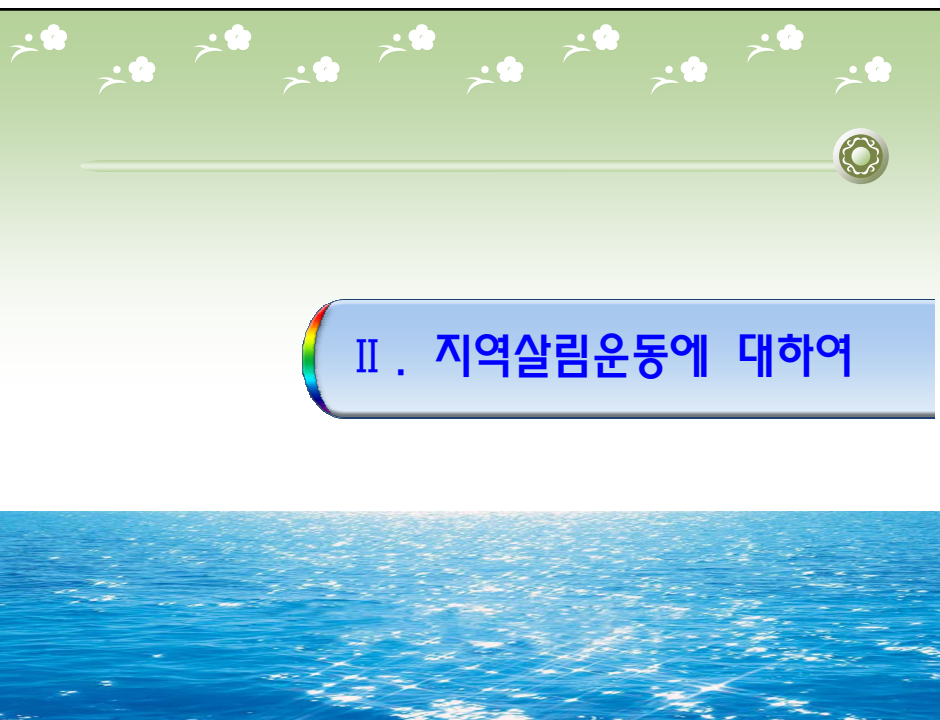
내다보기 : 지금의 성장체제 과연 지속가능한가?

- **성장 토대의 붕괴: '파이' (Pie) 키우기 식 성장 전략, 얼마나 지속가능한가?**
 - 키울 수 있는 파이의 '크기'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갈수록 파이의 '질'도 떨어지고 있는 현실
 - 찻불을 뜬 유모차 엄마들: "더 이상 '썩은 파이'를 키워서 나눠먹는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절박한 목소리
- **발전 좌표의 상실: '선진국 따라잡기식 성장 전략' 더 이상 유효한가?**
 - 사다리 건너차기: 선진 국가들은 과연 발전의 본래 목표를 달성했는가?
-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어디를 향한 '경제 살리기'인가?**
 - 목적과 수단의 전치 현상: '먹고 사는 문제', '살림살이' 문제를 외면하는 경제 살리기의 부작용

3. 죽음의 시대에서 살림의 시대로

공멸의 위기를 넘어 상생의 길 찾기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협력을 통해 함께 살아가기
■ 부리 뿜힌 근대화 과정 ■ 단절과 파편화 과정 ■ 배제와 억압의 과정 ■ 가치 획일화, 경제중심주의	■ 지역, 생활 현장에 부리 내리기 ■ 소통과 연대 ■ 포용과 돌봄 ■ 다양성, 삶의 질



4. 지역의 재발견

왜 지역인가 ?

■ 지역이 당면한 현실 : 도시화, 산업화

- 공간적 분리 : 높은 이동성, 직-주 분리
- 관계의 분리 : 소외, 단절, 정 붙이지 못하는 곳
- 가치의 분리 : 획일화, 서열화로 인한 정체성 상실과 박탈감

■ 국가-시장에 맡길 수 없는 삶의 문제들

- 국가: 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작고 지역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큼
- 시장(신자유주의): 불안과 공포를 매개로 경쟁체제 작동 – 개별화, 파편화, 무기력화

■ '지역'이 가진 다양한 새로운 의미들 포착

- 국가주의, 시장주의 논리의 폐해를 가장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현장
-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에너지(가치, 주체)가 발현되는 곳
- 생산-소비-여가-생활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삶 터
- 다양성 속에서 창조적 대안을 만들어 내는 용광로
- 만남과 소통의 과정을 통해 치유와 돌봄이 이루어지는 곳

5. 지역살림운동의 의미와 방향

지역살림운동의 필요성

■ 경제의 세계화와 생태위기의 지구화로 인한 충격

- 다가올 도전과 충격을 흡수하고 보호할 수 있는 삶의 안전판(완충지대) 만들기

■ 가치의 다원화와 양극화 심화에 따른 갈등의 증폭

- 이슈 발굴 → 여론 형성 → 여론 숙성 → 비전 형성

■ 국가 통치 논리와 시장 효율성 논리로 재편되는 지역

- 지역 주민들의 손으로 만들어가는 삶의 작은 거점들

물리적 경제 공간
(Economic Space)

풍성한 삶의 장소
(Life Place)

지역살림운동의 가능성 영역들

■ 지역 자구적(自求的) 운동들의 등장

- ‘우리 삶과 직결된 문제, 우리 힘으로 해결해 보자’ 는 움직임들이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등장

■ 다양한 활동 유형들

- 생협운동, 마을도서관 만들기, 학교급식운동, 대안교육운동, 놀이터만들기, 담장허물기, 공공미술운동(벽화), 재활용장터, 하천살리기, 청소년문화공간, 학교숲만들기, 마을만들기, 문화자치학교, 지역신문, 문학카페 만들기, 의정감시단, 주민자치운동, 조례제정운동 등

■ 다양한 참여 영역들

- 주민센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지원)센터, 급식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문화센터, 복지관, 노인복지센터, 여성센터, 학교운영위원회, 지방의제21실천협의회, 등 대표 등
- 학교, 종교단체, 친목활동, 자치모임 등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버 마을 카페)

6. 21세기 지역살림운동의 과제

지역사회를 둘러싼 중층적 권력구조와 살림운동 전략

구분	권력의 차원	전략
민주주의 복원, 확장	1차원적 권력 : 대면, 직접권력	인물 교체 : 주체 발굴, 리더십 육성 등
	2차원적 권력 : 제도화 된 권력	제도 개혁 : 정책개발, 조례제정 등
민주주의 심화	3차원적 권력 : 가치, 문화 권력	가치 전환 : 교육, 문화, 홍보 활동 등

■ 문명 전환의 ‘새판 짜기’ 를 위한 새로운 영역과 지형 만들기

- ‘장기판’ --> ‘바둑판’ 전략 / 대나무뿌리 전략 - 우후죽순(雨後竹筍)
- 삼시(三時)의 운명적 만남
 - 천시(天時) : 시대적 변화의 흐름과 내용, 의미
 - 인시(人時) : 많은 사람들이 가슴 깊이 요구하고 있는 것
 - 지시(地時) : 변화를 위한 조건과 토대

경계를 넘어선 입체적 재구성

■ 창조적 소수가 이끄는 운동 → 다중 주체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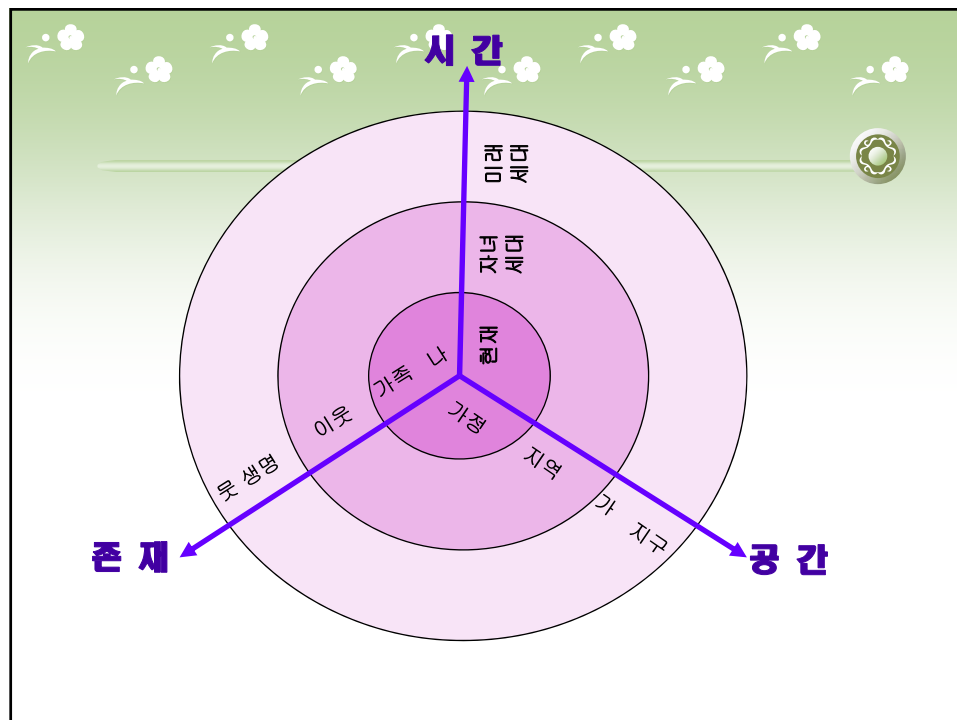
■ 지역 주민들의 다중적 역할

- 경계를 넘어선 생활인으로서 삶 : 납세자, 유권자, 생산 및 소비자
- 중복 멤버십 : 예) A 지역 주부 박모씨 - 한살림 조합원이면서 동화읽는모임 회원이고 공동육아 학부모이며 생태안내자이고 지역 상당의 자원봉사자

1) 관점 바꾸기 : 인식의 확장

■ '지금' (Now) - '여기' (Here) - '나' (Ego) 중심의 틀에서 벗어나기

- 이기(利己)와 이타(利他)의 경계 넘기 : 개성화 시대, 아름다운 개인주의(小我 → 大我)
- 공(公)과 사(私)의 경계 넘기 : 멸사봉공(滅私奉公) → 새로운 공(共) 영역 창출
예) 내 아이 문제 - 학교 문제 - 지역 문제 - 교육 시스템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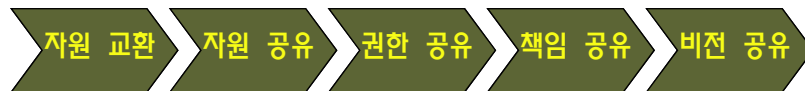


2) 관계 바꾸기 : 관계의 확장 및 심화

■ 관계의 확장

- 단체 내부 : 상근실무자-활동가-조합원(회원)
- 단체 간 : 새로운 파트너 발굴 및 보완적 협력
 - 비슷한 활동 영역들 간 네트워크
 - 상이한 활동 영역들 간 네트워크
 - 다양한 주체들 간 네트워크 : '민간' -'행정' -'기업' -'종교' -'학교' -'언론' 네트워크

■ 관계의 심화



3) ■거리 바꾸기 : 실천 영역의 확장

■ 지구적 문제와 지역 문제의 경계 넘기

- 예)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응하는 지역적 실천

■ 비판 운동과 대안 운동의 경계 넘기

- 비판 운동: 낡은 질서(가치, 제도)의 청산 - 원심력형 운동
- 대안 운동: 새로운 질서(가치, 제도)의 구축 - 구심력형 운동

■ 운동과 생활의 경계 넘기

- 삶과 일치된 운동 - 생활적 감성과 언어에 바탕한 운동의 요구
- 취미, 여가, 문화가 어우러지는 운동 [예, 82쿵닷컴, 마이클럽, 소울드레서 등]
- 이성[머리], 감성[가슴], 영성[영혼]이 조화를 이루는 운동
- 과정과 결과를 통해 재미와 의미, 보람을 함께 발견하는 운동

■ 운동과 정치의 경계 넘기

- 제도 정치에 대한 불신과 생활 정치의 부활 [예, 촛불 정국]



7. 한살림운동과 지역살림운동의 관계

지역살림운동은 한살림의 정신과 장점을 잘 담아내는 운동

■ 한살림의 가치 지향: 밥상 살림 → 농업 살림 → 생명 살림

■ '한' 살림으로서 지역 살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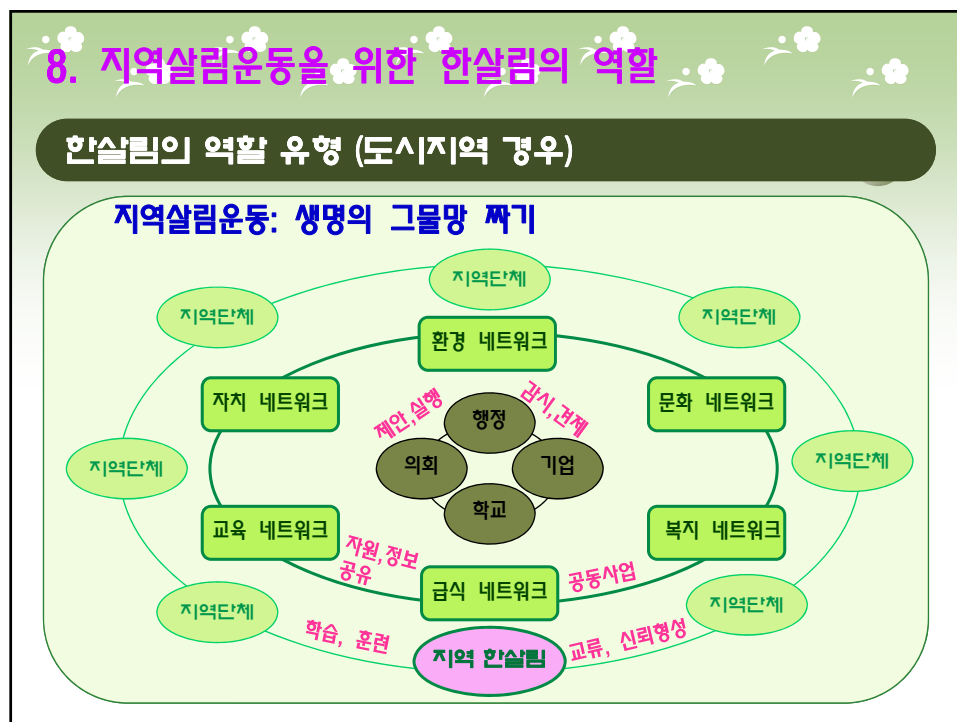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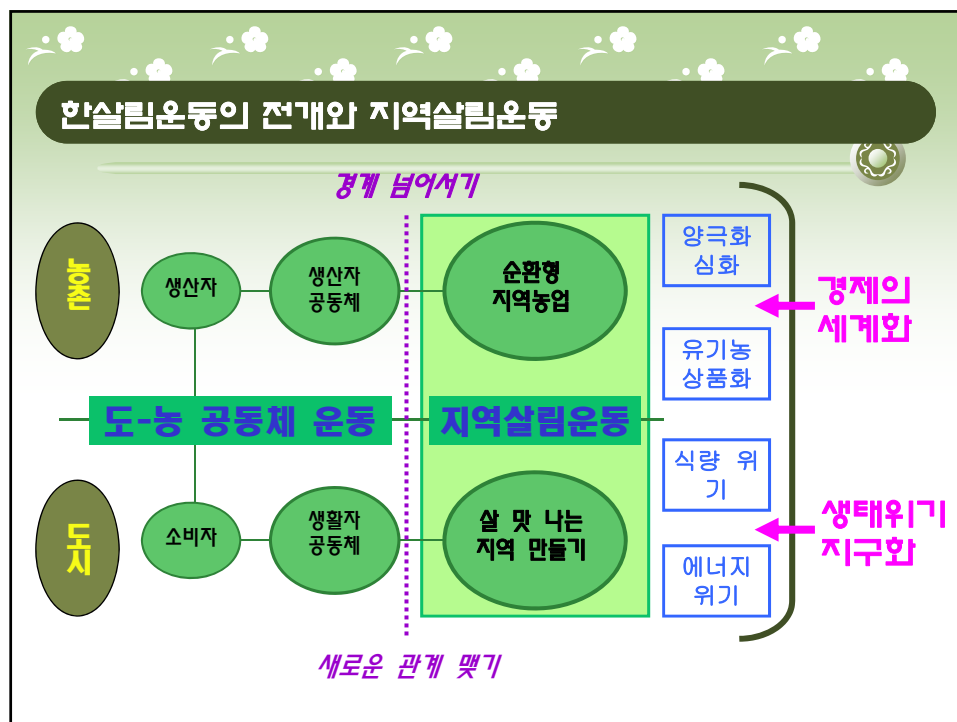
- 밥 한 톨, 나락 한 알 속에 담긴 총체적 생명의 의미: 일즉다 다즉일 [一即多 多即一]
- 개인의 자율과 개성이 마음껏 발휘 되도록 하여 사람과 지역이 함께 치유되고 발전하는 길 찾기
- 단절되고 파편화 된 관계를 회복하고 소통과 연대를 통해 상생의 질서를 회복

한살림운동의 특징이자 장점

운동과 삶(생활)이 결합된 지속가능한 운동

지역 현장과 밀착된 운동

구체적 필요와 미래지향적 가치의 균형 있는 결합



여전히 남는 질문들

- 물적, 인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만큼 높아지는 사회적 요구에 어떻게 책임 있게 답할 것인가?
- 한살림이 지향하는 지역살림운동은 무엇인가? 일반 생협운동과 무엇이 다른가?
- 선한 뜻을 가진 사람들(생산자, 소비자)만의 운동의 한계를 어떻게 넘을 것인가?
- 지역살림운동의 모델을 만드는데 있어 한살림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영역은 무엇인가?
- 생각은 깊게, 대신 발걸음은 보다 가볍게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 조직 차원의 자기 충족적 조건이 갖추어질수록 연대 활동이 약해지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지역살림운동을 위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감사합니다

